



강 북 구 의 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박문수 위원장과 강선경 부위원장, 한동진·김영준·유인애 의원 등 총5명 의원으로 구성된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면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지어

강북구의회는 12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를 개최하고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

박문수 위원장과 강선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한동진·김영준·유인애 의원 등 총 5명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심의를 한 후 11일 최종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했다.

이번에 구청에서 제출한 2015년도 강북구 예산은 4,100억원으로 예결특위에서는 강북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을 주민복지 향상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과 의견을 듣는 등 합리적인 예산이 배분되기 위해 신중을 기했다는 평가이다.

이번 예결특위 심의에서는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11건 4억 5,666만 3천원을 감액하고 27건 4억 5,666만 3천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2014년 보다 435억 9,800만원이 증가한 3,997억 700만원과 특별회계 2014년보다 1억 700만원이 증가한 103억 3,300만원 등 총 4,100억 4,1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을 결정했다.

신규편성으로는 구 공공근로특화사업에 2억 8541만5000원을, 강북구 인터넷 방송 문자활용 구성홍보 1,200만을, 일부증

액에는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3,129만6천원 등을 편성했으며, 부진한 다정다감 TV 사업에 대해서 1년동안 내실있는 운영 후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의 존폐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를 주문했다.

또 전통주 전시회는 2015년에 1회 개최로 한정했으며, 구민회관 뒤편 체육시설 설치예산은 시급성이 부족하여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삭감했으며, 동북4구 발전협의회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의회에 수시보고를 해주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자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및 광고물정비기금관리 운용위원회 운영수당은 2016년 예산부터는 해당기금으로 편성하기 바란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다.

박문수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결위 심사를 통해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했고, 행정환경변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구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초점을 두어 계수조정을 했다. 또 지역경제의 장기침체와 내수경기 부진으로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해 보다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축소하고 직접적인 민생관련 사업예산을 최대한 늘리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12월 15일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동북일보 1면

강북구의회 예결위,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심의 장면

일반회계 2014년 보다

435억 9,800만 원이 증가한
3,997억 700만 원, 특별회계
2014년 보다 1억 7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3,300만 원 등
총 4,100억 4,100만 원으로
세출예산안 결정

강북구의회는 2014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를 개최하고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

박문수 위원장, 강선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한동진 의원, 김영준 의원, 유인애 의원 등 총5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2월 9일~11일 3일간에 걸쳐 예산심의 한 후 11일 최종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였다.

구청에서 제출한 2015년도 강북구 예산은 4,100억 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북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을 주민복지 향상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과 의견을 듣는 등 합리적인

예산이 배분되기 위해 신중을 기했다는 평가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11건 4억 5,666만 3천 원을 감액하고 27건 4억 5,666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2014년 보다 435억 9,800만 원이 증가한 3,997억 700만 원과 특별회계 2014년보다 1억 7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3,300만 원 등 총 4,100억 4,100만 원으로 세출예산안을 결정했다.

신규편성으로는 구 공공근로특화사업 2억 8541만 5000원을, 강북구 인터넷 방송 문자활용 구성홍보 1200만을, 일부증액에는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3,129만 6천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부진한 다정다감 TV 사업에 대해서 1년동안 내실 있는 운영 후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의 존폐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전통주 전시회는 2015년에 1회 개최로 한정하며, 또한 구민회관 뒤편 체육시설 설치예산은 시급성이 부족하여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삭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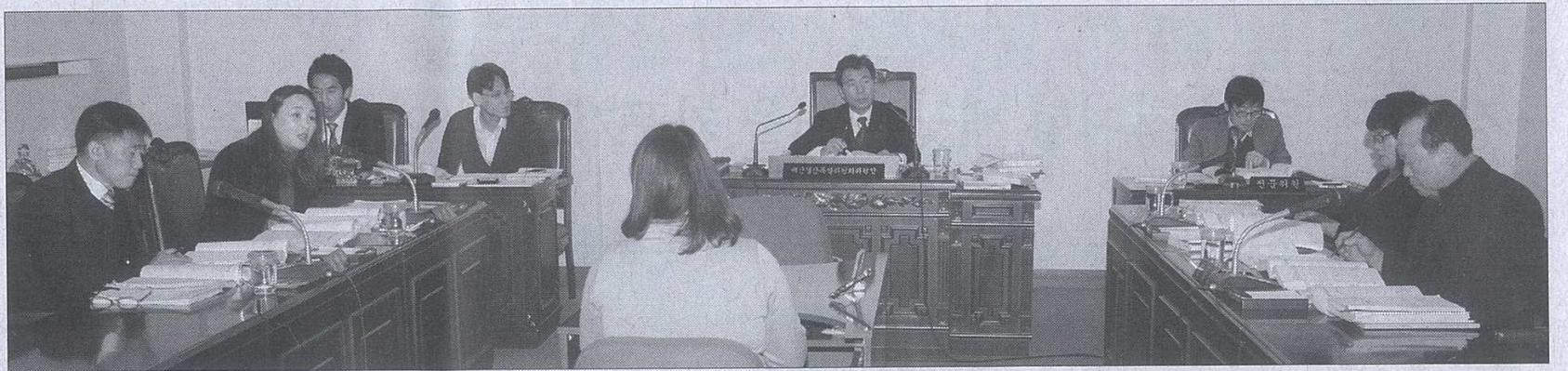
또한 동북4구 발전협의회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의회에 수시보고를 해주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자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및 광고물정비기금관리 운용

위원회 운영수당은 2016년 예산부터는 해당기금으로 편성하기 바란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다.

한편 박문수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결위 심사를 통해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구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만큼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했고, 행정환경변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구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초점을 두어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지역경제의 장기침체와 내수경기 부진으로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해 보다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축소하고 직접적인 민생관련 사업예산을 최대한 늘리는데 역점을 두었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12월 15일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예결위원회의 마지막 날에는 예산안의 계수 조정을 위해 차수변경까지 하며 새벽에 끝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 예산안 심의는 사업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차수변경 없이 오후 9시 30분에 마무리를 해 한층 더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이다.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12월 15일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확정 예정

강북구의회는 2014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를 개최하고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

박문수 위원장, 강선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한동진 의원, 김영준 의원, 유인애 의원 등 총 5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2월 9일~11일 3일간에 걸쳐 예산심의를 한 후 11일 최종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였다.

구청에서 제출한 2015년도 강북구 예산은 4천1백억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북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을 주민복지 향상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과 의견을 듣는 등 합리적인 예산이 배분되기 위해 신중을 기했다는 평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11건 4억5천6백6십6만3천원을 감액하고 27건 4억5천6백6십6만 3천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2014년 보다 4백3십5억9천8백만원이 증가한 3천9백9십7억7천만원과 특별회계 2014년보다 1억7천만원이 증가한 1백3억3천3백만원

등 총 4천1백억4천1백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을 결정했다.

신규편성으로는 구 공공근로특화사업 2억 8천5백4십1만5천원을, 강북구 인터넷 방송 문자활용 구정홍보 1천2백만원, 일부증액에는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3천1백2십9만6천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부진한 다정다감 TV 사업에 대해서 1년동안 내실있는 운영 후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의 존폐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전통주 전시회는 2015년에 1회 개최로 한정하며, 또한 구민회관 뒤편 체육시설 설치예산은 시급성이 부족하여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삭감되었으며, 동북4구 발전협의

회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의회에 수시보고를 해주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및 광고물정비기금관리 운용위원회 운영수당은 2016년 예산부터는 해당기금으로 편성하기 바란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박문수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결위 심사를 통해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구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만큼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했고, 행정환경변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구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원배분에 초점을 두어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지역경제의 장기침체와 내수경기 부진으로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해 보다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축소하고 직접적인 민생관련 사업예산을 최대한 늘리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12월 15일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강북구의회 예결회 예산안 심사 끝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는 11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

박문수 위원장, 강선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한동진 의원, 김영준 의원, 유인애 의원 등 총 5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2월 9일~11일 3일간에 걸쳐 예산심의를 한 후 11일 최종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했다.

구청에서 제출한 2015년도 강북구 예산은 4100억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설명과 의견을 듣는 등 합리적인 예산의 배분을 위해 신중을 기했다는 평가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1건 4억 5666만원을 감액하고 27건 4억 5,666만 3천원을 증액했다.

신규편성으로는 ▶구 공공근로특화사업 2억 8541만 5000원 ▶강북구 인터넷 방송 문자활용 구정홍보 1200만, 일부증액에는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3,129만 6천원 등을 편성했다.

사업이 부진한 다정다감 TV사업에 대해서 1년 동안 내실 있는 운영 후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의 존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전통주 전시회는 2015년에 1회 개최로 한정했다.

또한 구민회관 뒤편 체육시설 설치예산은 시급성이 부족하여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삭감됐다.

동북4구 발전협의회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의회에 수시보고를 해주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및 광고물정비기금관리 운용위원회 운영수당은 2016년 예산부터는 해당기금으로 편성하기 바란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박문수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결위 심사를 통해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구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만큼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했고, 행정환경변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구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원배분에 초점을 두어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지역경제의 장기침체와 내수경기 부진으로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해 보다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축소하고 직접적인 민생관련 사업예산을 최대한 늘리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